



“8000만원 빚 안고 폐업합니다”

신보중앙회, 광주·전남 폐업 88곳 조사

지난해 하반기 폐업한 광주·전남 소상공인 88명에게 물어보니 이들은 폐업 당시 8000만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문을 닫은 소상공인 5명 중 1명꼴은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발간한 '2022년 하반기 보증지원기업의 폐업 실태조사' 결과에 답했다.

신보중앙회는 지난해 9월 기준 보증 잔액이 남아 있는 광주 46개·전남 42개 등 830개 폐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11월7일~12월9일 전화·온라인 조사를 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폐업할 당시 부채 금액 평균은 광주 7896만원·전남 7605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5000만~7000만원 미만 부채를 지녔다는 응답률이 30.4%로 가장 많았고, 전남은 3000만~5000만원 미만이 28.6%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 빚이 있다는 응답률은 광주 19.6%·전남 23.8%에 달했다.

폐업할 당시 지역 소상공인 절반 넘게는 정부 정책자금으로 명맥을 잇고 있었다. 폐업 당시 자금 조달 경로로 '정부 정책자금'을 택한 폐업 소상공인은 광주 52.0%·전남 52.4%로 나타났다.

1금융권(광주 14.8%·전남 11.1%)에서 대출을

절반, 폐업 전 정책자금으로 버텨...5곳 중 1곳 “빚 많아 재기 난망”

10년 이상 영업장도 코로나에 문 닫아...“폐업 비용 지원해 줬으면”

받기도 했지만, 대출 이자율이 높은 2금융권(광주 14.7%·전남 16.8%)이나 카드 대출(광주 8.0%·전남 10.5%)로 급하게 돈을 당겨쓴 일도 있었다.

지역 소상공인을 폐업에 이르게 한 가장 큰 이유(1순위)는 매출·이익 부진으로, 응답률이 광주 78.3%·전남 66.7%로 나타났다.

폐업 결정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있었는지 묻는 항목에서는 광주 97.8%·전남 97.6% 등 대부분이 그렇다고 답했다.

코로나19가 국내 확산한 이후 개업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업장 문을 닫은 비율은 광주 36.9%·전남 19.0%에 달했다. 5곳 중 1곳 꼴은 10년 이상 영업을 했음에도 폐업을 택했다.

이들 응답자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대출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대출금을 갚는 방법(1순위)으로 취급소득(광주 34.8%·전남 33.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사채 또는 금융권 대출을 받아 갚는다는 응답률은 광주 13.0%·전남 16.7%로 나타났다.

경영 악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했어도 폐업까지 달는 길도 험난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폐업 과정에서 소요된 모든

폐업비용 평균은 광주 2064만원·전남 1814만원으로 집계됐다.

폐업비용을 구간별로 나누면 광주에서는 500만원 미만이 28.3%로 최고였고, 전남은 1000만~2000만원 미만이 31.0%로 가장 많았다.

폐업할 때 가장 힘든 사항 1순위로는 광주·전남 소상공인 모두 '권리금 회수'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같은 맥락으로 '사업장 매도'가 힘들다는 응답률이 뒤를 이었다.

폐업한 뒤 힘들었던 점으로는 '가계 경제의 어려움'이 광주 76.1%·전남 7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명 중 1명꼴(광주 21.7%·전남 23.8%)은 '과도한 채무로 인한 정상적인 경제 활동 재개 곤란'을 꼽았다.

폐업 소상공인들은 이후 취업을 했거나(광주 34.8%·전남 28.6%) 재창업(광주 21.7%·전남 28.6%)을 하며 경제활동을 이어갔다.

폐업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은 폐업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항(1순위)으로 '원상 복구 비용 등 폐업비용 지원'을 광주 45.7%·전남 47.6% 등으로 꼽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자영업종합지원센터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

전남신보, 소상공인 종합 지원

전남신보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종합지원을 위한 '자영업종합지원센터'를 전남도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 자영업종합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일대일 경영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온·오프라인 판촉과 세무 실무, 노무 관리, 법률, 고객 서비스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해법을 제시하고 매장 관리, 상품 개발, 일대일 상담도 벌인다.

기존 사업자뿐만 아니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도 무료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커피, 제과·제빵 분야 메뉴 개발을 위한 실습 교육을 벌인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스토어 입점을 위한 디지털 전환 교육도 펼친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연계해 가맹사업, 하도급 거래,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불공정 약관, 임대차 분쟁 등 불공정거래로 피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분쟁조정을 지원한다.

정양수 전남신보 이사장은 “전남지역 사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소상공인이 신뢰하고 함께하는 기관이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1577-961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켄텍-GS건설,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 협력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와 GS건설이 7일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기술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나주시 빛가람동 대학 1동에서 윤의준 총장과 김영선 GS건설 전무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GS건설 김진걸 상무, 최영주 상무보, 김재홍 책임연구원과 켄텍 박진호 연구부총장, 한중희 수소에너지연구소장, 김창희 교수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 12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소재, 부품, 시스템 개발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신뢰성평가 개발 ▲공동 연구개발 주제의 발굴, 산학 및 국가연구과제 공동 추진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인력 양성 ▲연구와 교육 협력을 위한 인력 교류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수소는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에너지로서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며 “GS건설과 함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린수소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주택건설협 광주·전남도회 중산층 주거안정 협약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정기섭)는 7일 우리은행 호남영업본부, 광주문화원협과 지역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원활한 주택 공급을 공급이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런 협약에 따라 주택건설협회와 우리은행, 문화원협은 지역주택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지원과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기섭 회장은 “최근 자본건전성 강화에 따른 유동성악화로 주택시장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지역 금융권이 주택공급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지역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제철 새꼬막 최대 40% 할인

홈플러스, 9일부터 ‘수산대전’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의 하나로 장흥·여수·순천 앞바다에서 난 새꼬막이 홈플러스에서 최대 40% 할인 판매된다.

홈플러스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해양수산부 주최 ‘대한민국 수산대전’에 동참하며 남도 별미 새꼬막을 할인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홈플러스 수산 구매 담당자(바이어)는 지난 3주 동안 장흥과 여수, 순천을 찾아 새꼬막 판매 물량을 전년보다 50% 늘려 확보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전국 점포에서 지난해 12월 새꼬막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2% 급증하고, 올해 1월은 56% 증가했다.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 기간에는 전남 대표 수산물 새꼬막과 홍가리비를 40% 할인한 가격에 내놓는다.

수산물 이력제 국물용 멸치는 홈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40% 할인 판매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디지털금융 강화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가운데)는 7일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에서 전남지역 농·축협 직원 20명과 ‘디지털금융 마에스트로’ 클럽을 만들고 디지털금융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농협 제공>

대파·오이·양파값 전년보다 ‘두 자릿수’ 올라

불규칙한 기상 영향 등으로 대파와 오이, 양파 가격이 전년보다 ‘두 자릿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간한 농산물 소식지 ‘얼마오 2302호’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광주 양동시장에서 팔린 취정 오이 10개 가격은 1만6200원으로, 1년 전(1만3000원)보다 24.6% 올랐다. 이는 2주 전(1만4500원)보다 11.7% 상승한 가격이다.

aT 광주전남본부는 오이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품질이 떨어지면서 출하량이 부족해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상 악화로 산지 출하가 지연되고 있는 대파 가격도 전년보다 10% 넘게 올랐다.

대파 1kg 가격은 2810원으로, 1년 전보다 12.4% 상승했다.

양파 1kg은 지난해보다 19.0% 오른 2380원이었고, 감자 100g은 36.6% 상승한 410원으로 조사됐다.

청상추 100g 가격은 900원으로, 1년 전보다 12.5% 올랐지만 2주 전보다는 26.2% 내렸다.

감귤 10개 가격은 전년보다 21.6% 오른 3650원으로 나타났다. 배는 설 명절 이후 산지 재고가 소진되면서 출하량이 줄어들어 2주 전보다 소폭(0.9%) 올랐다.

겨울 제철 수산물 생굴 1kg 가격은 1만7100원으로, 전년보다 20.4% 올랐다. /백희준 기자 bhj@

갤럭시아넥스트 ‘아트페스타 제주 2023’ NFT 판매

갤럭시아넥스트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메타갤럭시아’ (MetaGalaxia)에서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아트페스타 제주 2023’ (ART FEST 2023 JEJU) NFT(대체불가토큰)를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메타갤럭시아는 국내 최대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 NFT 플랫폼이다.

아트페스타는 여러 도시에서 개최되는 아트페어로 이번 행사는 제주에서 열린다. 메타갤럭시아는 ‘아트페스타 제주 2023’의 공식 파트너로, 와스갤러리의 팝아티스트 초대전 기념 NFT를 판매하고 있다.

와스갤러리는 행사 기간 동안 해외 유명 팝아티스트인 줄리안 오피(Julian Opie), 알렉스 카츠(Alex Katx), 마이클 크레이그-마틴(Mi-

chael Craig-Martin) 3인의 작품을 선보인다. NFT 구매자에게는 아트페스타 무료 입장과 함께 해당 작품 구매 시 5% 할인 혜택 제공한다.

메타갤럭시아의 운영사 갤럭시아넥스트는 지난해 9월 NFT 중심의 아트페어 ‘키아프 플러스(Kiaf PLUS)’에 와스갤러리와 공동으로 참가한 바 있다.

갤럭시아넥스트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최대 아트페어 키아프에서 NFT 작품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파트너로서 행사에 참여한다”며 “여러 분야의 아티스트들과 기업,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기존 미술 시장과 NFT 아트 시장을 연결하고 유틸리티 NFT로 확장하는 상호 협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올해 세무사 700명 선발...세무공무원 출신 별도 선발

1차 5월 13일·2차 8월 12일

정부가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최소 700명의 합격자를 선발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과 최소 합격 인원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시험 최소 합격 인원은 700명이다. 세무사 최소 합격 인원은 2019년 이후 5년째 700명을 유지하고 있다.

단 올해 시험부터는 최소 합격 인원을 일반 응시자에게만 배정한다.

일반 응시자 중 최소 700명의 합격자를 뽑고 세무공무원(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 20년 이상 국세경력자) 출신 응시자 중에서는 추가로 합격자를 뽑는 식이다.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한다.

1차 시험은 5월13일, 2차 시험은 8월12일이다. 시험은 광주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에서 실시된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51.71(+13.52)
↑ 코스닥	772.79(+11.46)
↑ 금리(국고채 3년)	3.315(+0.032)
↑ 환율(USD)	1255.30(+2.50)